

광양만권에 경도 추가 ... 울촌항만 부지 제외

〈경제자유구역〉

전남도, 복합리조트·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포함 개발 더딘 지구 2020년까지 순차 지정 해제 방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이 경제자유구역에 울촌항만부지를 제외하고 여수 경도를 추가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개발이 더디면서 구역 해제 면적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인천, 경남 등 타 시·도 후보지와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남도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여수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일 전남도와 광양만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해 순천, 여

수, 광양과 경남 하동 일대에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지난해 8월 용강그린테크밸리(2.01㎢), 신대휴먼그린단지(2.33㎢) 등에 이어 올해 울촌항만부지(5.13㎢)도 해제하기로 했다.

울촌항만부지는 여수시 울촌면 해면 일원으로, 컨테이너부두 및 항만배후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광양만청은 항만구역으로 중복지정돼 있어 개발관리가 어렵고 해양수산부가 개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수 경도(2.17㎢)는 구역 내로 편입하

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올 연말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여수 경도가 복합리조트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큰 경제구역 내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수 경도와 함께 경쟁중인 인천 6개소 중 5개소, 경남 1개소 등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최초 88.98㎢의 면적으로 지정됐다가 그동안 11.29㎢가 해제돼 현재 77.69㎢이며, 울촌항만지구가 해제되고 여수 경도가 추가 되면 74.73㎢로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구역 내 21개 지구 중 59.82%에 해당하는 12개 지구(46.48㎢)는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이며, 울촌 2산단, 울촌 3산단 등 9곳은 개발이 미진한 상태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한시조치인 광양만청은 오는 2020년까지 경제구역 내에 포함돼야 한다는 구역 지정 해제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7일까지 여수 경도를 비롯해 경남 1개소, 부산 1개소, 인천 6개소 등 4개 시·도로부터 9개 후보지에 대한 사업 제안서(RFP)를 받아 내년 2월~3월 말까지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탄력

34곳 중 4곳 20억 투자 유치 특화된 사업 추진 가시적 성과

개소 9개월을 맞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특화된 사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2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소 후 목표인 20개사를 넘긴 34개사에 대해 성장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곳은 2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자동차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센터는 오는 2019년까지 신기술사업 펀드(535억원)와 수소펀드(161억원) 등 686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올해 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TIPS) 등으로 창업 기업 육성에 나섰다. 1센터는 광주시를 수소연료전지차 산업 중심 도시로 조성하려고 관련 벤처기업 육성, R&D 프로젝트 수행, 수소 버스 시범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2센터는 전통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생활창업 지원, 발산 창조문화마을 조성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활동에 전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동구 대인시장에서 시범 점포 두 곳을 운영했으며, 송정역 앞 매일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광주시, 상인과 함께 특화 아이템 등을 개발 중이다.

센터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200억원 규모 보증펀드를 운용하면서 현재 67개사에 76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생활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문화와 예술분야의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24개팀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발산 창조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낙후된 양3동 발산마을을 찾고 싶은 곳으로 변모시키려고 '컬러 아트' 프로젝트 등을 돕고 있다.

유기호 센터장은 "인력과 예산이 다른 지역의 혁신센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앞으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 혁신 거점,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의 접점 등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흥 우드랜드에 전남 푸드트럭 1호점 들어선다

장흥군 '우드랜드'에 푸드트럭 전남도 1호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2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15년 규제개혁 중점 분야로 선정된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푸드트럭 영업자,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장흥군수 등이 참여해 서로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보·인력·장비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기관에서는 장흥 특산자원을 이용한 푸드 트럭 판매 제품 개발과 제품화 지원, 디자인과 상품화 컨설팅 등을 영업자에게 지원하고, 영업자는 푸드트럭 메뉴를 통해 장흥군 특산자원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푸드트럭 영업 허용을 위해 지난 8월 판매용 우드랜드를 푸드트럭 시범운영지로 선정해 데 이어 모집공고를 거쳐 지난달 23일 영업자와 최종 계약을 체결, 1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1호점인 푸드트럭 시범운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연구기관과 함께 푸드트럭 메뉴개발 지원 등 상품화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남우수전통시장 박람회 '소망 풍선 날리기' 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회 전남우수전통시장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소망 풍선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순천 옷장 등 전남지역 32개시장·43개 점포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4일까지 열린다. <전남도 제공>

'지역신문 컨퍼런스' 6일 대전서 열린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수사례 공유·지원사업 성과 확인

지역 언론인들의 축제 '2015 지역신문 컨퍼런스'가 오는 6일 오전 11시부터 대전시 서구 괴정동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우병동)가 개최하는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지역신문 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및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역신문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다.

지난 2007년 첫 번째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신문, 테크놀로지와 혁신'을 주제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지역신문이 나아갈 방향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로봇·드론 저널리즘', '창의주도형 및 공동체 캠페인 우수사례', '미래 기자의 눈' 등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지역신문들이 앞으로 비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기획탐사보도와 스마트전략 및 사업 다각화, 독자친화 및 지역민참여보도 등 지역신문의 역할을 공유하는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총 12개 분야 35개의 사례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서도 지역신문들은 경영혁신과 독자중심의 지면제작을 통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신문의 혁신전략과 비전을 모색하고, 지역신문 종사자 간 친교와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시상식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작과 대학생 공모전 본선 진출작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상,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 금상, 은상, 동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 상징 관광기념품 히트작 나올까

인물·유물·문화재 등 분석 10개 시제품 제작 전문가 자문

전남도가 관광기념품 '히트작' 배출에 인간힘을 쓰고 있다. 전남을 상징하면서 보유 가치가 높고 대중적인 인기까지 삼박자를 두루 갖춘 기념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우선 현재 판매되고 있는 관광기념품을 분석한 뒤 10개의 시제품을 만들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첫 작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내에서 제작된 관광기념품은 도자기, 녹차, 갯김치, 매실, 대나무 관련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100개 정도다. 이순신, 왕인 등 인물에 주안점을 둔 기념품이 226종으로 가장 많고, 작품(거북선 모형 등) 120종, 지역 특산물 39종, 유물 29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품화된 대나무팬, 천연 염색 넥타이, 청자시계, 편백향주머니 등의 가격은 1만~7만원 수준이다.

전남도는 지역 특산물이 많고 품질은 우수하지만 디자인 미흡, 비싼 가격, 보관 어려움 등이 단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강황, 최부, 왕인, 윤선도, 이순신, 장보고 등 지역 인물, 윤선도, 간양록, 표해록, 자산어보, 목민심서 등 고서, 화엄사 4사자3층석탑 등 유물 등을 분석해 10개의 시제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도자기, 금속공예, 족자, 타일, 목재 등에 지역의 상징성을 접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전남 관련 인물 10인, 관련 유물 10점 등을 선정, 이들을 어떻게 디자인해 기념품으로 만들 것인지 검토에 착수했다.

시제품이 나오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완한 후 제작·판매에 들어가고 2016년부터 3년간 관광기념품 공모전도 개최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타 시·도의 관광기념품도 분석했으나 전남도와 마찬가지로 딱히 히트상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남을 상징할 수 있으면서도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마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Baekwon Kwangju Eye Clinic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했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